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4, 2023

논 문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UCCN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남기범

도시 문화생태계에 대한 유럽의 관점
실비아 아만

우리의 실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역문화 거버넌스 ‘공유성복원탁회의’라는 실험
권경우

문화생태계 조성: 2019 유럽 문화 수도 마테라의 경험
로젤라 타란티노

문화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역 국립 박물관의 역할
장상훈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문화21 플러스”
마르타 요베트

도시 문화생태계에 대한 유럽의 관점

실비아 아만*

초 록

문화를 통해 발전하고자 하는 도시는 우선 비전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린츠(Linz)시는 산업 도시의 이미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문화도시로 장기간에 걸쳐 변모한 흥미로운 사례다.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반이 필요하다. 도시의 문화 발전 계획은 미래 비전에 기반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포괄적인 참여와 수준 높은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다.

문화도시 개발 과정에는 개인, 조직 및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협력적 생태계에는 관광, 녹색 전환, 도시 개발 등과 같은 부문 간 파트너의 참여도 필요하다.

게다가, 의미 있는 데이터 생성 등을 포함한 연구 지원은 문화를 통한 개발이 사회, 경제, 환경,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된 레이우아르덴(Leeuwarden)시도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다.

키워드: 문화 발전, 도시 영향, 내러티브, 참여, 생태계, 전환

문화에 생태계적 접근법을 적용하려면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상호 연결성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생태계에 대한 성찰을 비롯해 장기적인 목표에 기반한

* Inforelais의 대표인 실비아 아만(Sylvia AMANN)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 문화 수도 선정 및 모니터링 위원회의 위원이자 EU의 도시 개발 프로그램의 문화 전문가였다. 그녀는 EU 창의산업 개발 전문가 그룹의 의장으로서 문화 및 창의 부문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부문 간 혁신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또한 실비아는 유럽 문화 수도의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해 여러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국 및 전 세계 도시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메일: office@inforelais.org.

전략인 문화가 있는 도시 개발을 위한 비전에 대한 성찰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 사회, 경제, 환경 및 도시 발전 문제에 대한 분석은 적절하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는 데이터 수집과 커뮤니케이션 등을 포함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생태계적 접근법은 서로 연결된 여러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글에서는 유럽 대륙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문화가 있는 도시 개발을 위한 비전

의사 결정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러티브는 도시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매우 강력한 도구다.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내러티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좋은 내러티브는 문화와 그 밖의 분야에서 도시의 사회적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또 다른 관심 영역은 지역 역사와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을 위한 내러티브의 가독성(readability)이다. 도시 내러티브는 (잠재적) 방문객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케팅 접근방식은 너무나 근시안적이다. 내러티브는 실제 현장 경험과 구체적인 제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린츠시는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산업 현장이라는 인식을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핫스팟으로 탈바꿈시켰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유서 깊은 도시인 비엔나와 잘츠부르크의 문화유산 명소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린츠시에게는 상당한 도전과제였다. 문화유산에 강하게 기반을 둔 이 두 문화도시들의 사례를 따르는 것은 린츠시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행가능한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린츠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역사지구를 가지고 있으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내러티브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주민들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을 것이다. 린츠의 강력한 철강산업과 1979년에 시작되어 이미 잘 알려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Ars Electronica Festival)을* 반영하는 도시의 산업유산과 기술을 바탕으로 대안적인 내러티브를 찾아야 했다. 이 도시의 문화 발전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2009년 유럽 문화 수도로** 지정되면서 린츠는 문화적 핫스팟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지원으로 더욱 힘을 얻었다.



오늘날 린츠시는 유럽 문화 수도의 해를 맞아 이루어진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관광과 문화 간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린츠관광청은 참여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을 위해

1. <https://ars.electronica.art/futurelab/en/our-journey/>
 2. https://www.linz09.at/en/ueber_linz.html.

새로운 비전에 투자했다. 이와 관련된 수상 경력을 가진 홍보 영상들은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도시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게스트(‘방문객’이라는 용어 사용과는 다른 의미)를 위한 활동에는 도시의 창의산업과 관련된 관광 관련 체험과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둔 다뉴브강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 패키지가 포함된다. 스토리텔러들은 작가와 연구자, 철학자, 인플루언서들로, 린츠와 기타 협력 도시 및 장소에서 발견한 내용을 서로 공유한다. 이 새로운 관광 문화 내러티브는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이동 방식과 혁신적인 관광사업자를 장려하고 있다.

2. 문화로부터 기회와 도전에 대한 해답의 공동 창출

도시 정책 입안자들이 미래 지향적인 행동을 취하려면 먼저 비전이 필요하다. 린츠의 경우, 문화가 과거의 다소 부정적이었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비전만으로는 성공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 및 창의 분야와 관련된 기존 과제와 기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린츠시는 이미 1990년대 후반에 문화 발전을 위한 다년간의 프레임워크인 ‘문화발전계획’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관련 전략은 2000년에 발표되었으며, 6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참여적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여러 부문에 걸쳐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정의했다. 2023년에 발표된 현재의 문화발전계획은** 네 가지 주요 관심 분야인 기회 평등 증진, 잠재력 육성, 접근성 촉진, 도시 개방을 다루고 있다.***

린츠시의 문화정책은 ‘기회 평등 증진’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도시라는 린츠의 전반적인 정치적 지

3. <https://www.linztourismus.at/en/leisure/discover-linz/linz-inspires/planetlinz>.

4. <https://www.linz.at/english/culture/3895.php>.

5. <https://www.linz.at/images/KEPneu.pdf>. 우선순위의 세부사항은 린츠시 문화발전계획의 독일어 버전에서 번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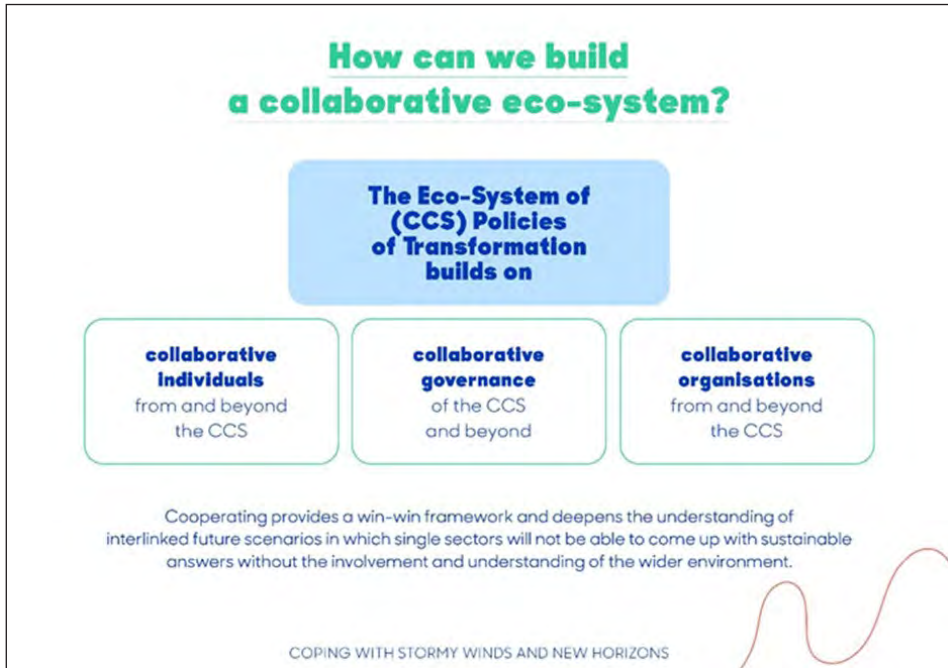


그림 2. Sylvia Amann, 창의적 플립(2023)

향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문화 부문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린츠시는 문화정책에서 모든 개인과 집단의 평등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접근과 이용에 대한 기존의 장벽을 없애고,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을 확립하며, 인종적, 종교적 측면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는 ‘모두를 위한 문화’라는 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잠재력 육성’이다. “문화에 대한 계획은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자 사회적으로 관련된 질문과 예술적 경향을 다루기 위한 기초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이미 존재하는 창의적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공공 문화기관과 독립적인 문화예술계에 대한 재정 지원 등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공공 임무로서 약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문화예술 생산의 필수 요소인 적절한 인프라를 보장하는 것이다. 린츠시의 문화예술 창작은 학제 간 활동이나 최첨단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 번째 우선순위인 ‘접근성 촉진’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와 조정은 ‘모두를 위한 문화’의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교육은 가능한 한 폭넓은 층의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 행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다. 따라서 린츠 문화정책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인종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환경은 물리적 도시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만나고, 비평에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공간으로 정의되는 공공 공간이다.”

네 번째 우선순위는 도시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성은 개방성, 복잡성, 네트워킹, 고밀도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린츠시는 오스트리아 북부 지역의 도시 중심지로서 특별한 역할과 과제를 안고 있다. 린츠시는 주(state)의 행정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경제 지역의 문화적인 힘을 가진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도시 린츠에게 도시 개방이란 초지역(supra-regional) 네트워크와 유럽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문화예술 창작의 국제화를 촉진하며, 문화 제공사 간의 협력을 통해 도시 문화 체험의 밀도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린츠시가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다루는 일은 이 도시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적인 도시로서 공고히 하려는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통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린츠시의 과거, 특히 국가 사회주의 유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현재와 미래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선순위에서 문화의 범분야적 특성이 드러나는데, 이는 사회적 및 인프라 관련 문제와 더불어 공공 공간의 중요한 역할과 도시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다루고 있다. 린츠시의 문화발전계획은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전체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3. 모두가 긍정적인 변화와 영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린츠시와 다양한 다른 유럽 도시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생태계의 적극적인 힘을 광범위하게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은 공통의 내러티브와 그와 관련된 목표에 기반을 둘 경우 관성에 대한 방화벽의 역할을 한다. 변화의 주체는 누구일까? 문화 생태계는 거버넌스, 조직, 개인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저자가 2023년에 발표한 협력적 혁신 정책의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협력적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화창의의 부문 혁신 정책의 생태계는 다음과 같이 구축된다.

협력적인 개인

문화창의의 부문 및 기타 부문

협력적인 거버넌스

문화창의의 부문 및 기타 부문

협력적인 조직

문화창의의 부문 및 기타 부문

협력은 원인의 틀을 제공하고, 좀 더 넓은 환경의 참여와 이해 없이는 단일 부문들이 지속가능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개인은 예를 들어 예술가, 문화 종사자, 관객을 포함하며, 조직은 도시의 문화 부서와 같은 문화 행정 기관을 포함한다. 박물관이나 극장과 같은 도시의 다양한 문화 기관도 모두 포함된다. 조직은 또한 창의산업에 속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생태계의 거버넌스 부분에는 문화

6. https://creativeflip.creativehubs.net/wp-content/uploads/2023/01/CREATIVE_FLIP_Transformation_Policies_FINAL.pdf.

활동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제공하는 데 책임이 있는 의사 결정권자와 정치인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도전과제와 기회는 문화 부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태계는 다른 부문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도시가 문화 부문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친환경 교통 옵션의 이용가능성 등 경제 및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친환경 전환 준비가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는, 광범위하게 상호 연관된 국제적인 역사 배경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 문화유산 개발의 경우다. 이와 관련된 경제 개발 옵션은 대부분 관광과 연계되어 있어서 문화 이해관계자와 관광산업 대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시의 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내러티브와 중요한 목표는 의미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할 것이다. 이는 앞서 린츠시의 사례를 통해 강조한 것처럼 부문 간 협력의 한 요소로서 문화 관광을 접근하는 방식은 명확하고 관련이 있는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문화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문화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지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장기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공동의 후속 이행과 함께 구체적인 단기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한 양질의 연구 및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전체 생태계 과정에는 학술 지원과 더불어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예산 편성 여부 등의 사실과 수치를 수집할 수 있다. 문화 발전 프로젝트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의미 있는 데이터와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도시 문화 활동의 효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도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언론인들이 도시의 문화 발전에 대해 정확하게 보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8년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된 레이우아르던 시는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 지속가능성, 유럽 차원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⁷ 종합적인 연구와 데이터를 수집했다. 레이우아르던-프리슬란트 2018 (Leeuwarden-Friesland 2018, LF2018)로부터 상당한 사회적 영향이 보고되었다. “LF2018에 대한 참여는 전반적으로 엄청났다. 총 53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이 지역의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68%가 이 행사에 관여했다고 느꼈다. 인구의 약 10%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 LF2018 행사의 78%는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세대 간의 협업을 진행했다. 목공과 가구 제작뿐만 아니라 세트 디자인과 직물 등의 전통 공예 기술은 65세 이상의 사람들과 젊은 세대 간 교류의 중심에 있었다.”

경제적 효과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방문객들은 약 1억 1,900만 유로를 지출했다. 처음에 7,400만 유로로 추정되었던 투자 실현액은 1억 4,500만 유로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효과는 2억 3,000만 유로에서 3억 2,000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는 추가 방문객과 관광객의 지출, 문화 부문에서의 추가 매출, 자본 지출, 파생적인 지출 효과 등이 포함된다. 일부 이니셔티브는 특히 체험 관광과 문화 관광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11개의 분수(Fountains) 프로젝트는 이 지역에서 꼭 봐야 할 새로운 문화 유산을 형성했다. 이 예술 프로젝트는 프리슬란트주의 11개 도시에 있는 11개의 분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11명의 예술가들이 디자인했다.”

지속가능성과 생태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LF2018 노력의 핵심이었다. “주요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80%에서 제공된 음식은 현지에서 생산되었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했으며, 재료를 재사용했다. LF2018은 혁신, 사회경제적 변화, 지속가능성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지역 이니셔티브인 이노페스트(Innofest)는 축제를 혁신의 생활 실험실로 활용하고 신생 기

7. <https://eurocities.eu/latest/leeuwarden-friesland-european-capital-of-culture-2018-was-a-sustainable-success-on-all-accounts/>. 네 가지 영향 영역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은 이 모범 사례 설명에 나와 있다.



그림 3. 레이우아르던의 사랑 분수(Jaume Plensa), 2018, (© Sjaak Kempe)*

업들이 자사의 시제품을 축제에서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소통의 효과로 칭찬을 받고 있는 한 가지 뛰어난 사례로는 엘프베헨토흐트(Elfwegentocht)가 있는데, 이 행사가 진행되는 2주 동안 프리슬란트주 전체가 화석 연료 없이 운영되며, 전기차, 자동차, 보트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로 절정에 이른다.”

유럽 차원이란 유럽 문화 수도 이니셔티브가 유럽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친 측면을 의미한다. “2018년에는 87개국의 예술가, 학생, 박물관들과 약 1,600건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76%는 EU 국가의 기관들과 이루어졌다. 외국 대학과의 파트너십이 증가하면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대학교 직원 수가 증가했다. 네덜란드 수자원 기술 분야의 중심지인 워터캠퍼스(WaterCampus)의 국제 동맹 파트너의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 그 결과, 이 분야에서 레이우아르던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이것은 LF2018이 물 분야와 같은 다른 분야로 파급된 구체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당한 성과를 바탕으로, 레이우아르던 시와 파트너들은 후속 조치를 고려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지정되는 것이었다.**

5. 리뉴얼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유럽 도시의 사례들은 명확한 비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계획의 개발, 양질의 연구 및 데이터의 활용을 수반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들은 또한 지속적인 변화를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생태계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에 적응하고 비전과 계획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